

發掘調査報告書

南漢山城 望月寺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001



東

0695649

望月寺 發掘調査團



南漢山城 望月寺

文明大



2001

東國大學教 望月寺發掘調查團

차 례

I. 머리말

II. 망월사의 현황과 역사

III. 발굴조사 경위와 경과

IV. 망월사의 건축유구

1. (가)유구 2. (나)유구 3. (다)유구

V. 망월사의 출토유물

VI. 고찰

1. 건축고찰 2. 유물고찰

VII. 맺음말

도판차례

도 면

- 도면 1. 望月寺 平面圖
- 도면 2. 望月寺 現況圖 및 發掘區域

도 판

- 圖 1. 望月寺 遠景
- 圖 2. 望月寺 開土祭 장면
- 圖 3. 望月寺 全景
- 圖 4. (나)·(라) 지역 발굴전 상태
- 圖 5. (가) 지역 발굴장면
- 圖 6. (가) 지역 발굴장면
- 圖 7. (가)지역 유구 노출상태
- 圖 8. (가)유구 석열 노출상태
- 圖 9. (나)·(다)지역 발굴장면
- 圖10.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 圖11.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 圖12.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 圖13. 유물 출토상태
- 圖14. 常平通寶 출토상태
- 圖15. (다)지역 전경
- 圖16. (다)지역 발굴 장면
- 圖17. (다)지역 유구 노출상태
- 圖18. (다)지역 유구 전경

- 圖19. 귀면문 수막새편
圖20. 명문 숫기와
圖21. 숫기와
圖22. 숫기와
圖23. 숫기와
圖24. 숫기와
圖25. 숫기와
圖26. 숫기와
圖27. 숫기와
圖28. 숫기와
圖29. 숫기와
圖30. 숫기와
圖31. 숫기와
圖32. 숫기와
圖33. 숫기와
圖34. 塼片
圖35. 塼片
圖36. 백자접시
圖37. 백자접시
圖38. 백자굽편
圖39. 실감개
圖40. 常平通寶
圖41. 鐵製具

1. 머리말

남한산성 안에 위치한 망월사(望月寺)는 조선초에 창건된 이해 임란과 병자호란을 격으면서 승군 지휘소가 되는 등 남한산성 사찰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망월사는 쇠락해져 발굴시에는 겨우 건물 한 동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망월사는 1동의 건물 외에 모든 건축부지에 발굴하여 원래의 모습을 밝히고 이에 따라 복원을 목적으로 발굴하기로 한 후, 동국대학교에 발굴을 의뢰하였으므로 1989년 10월 24일부터 평판실측과 시굴지 설정, 인부수급 등을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실시했으며 동 12월 6일 일단 종료했고, 그 다음해 1990년 3월에는 약 1주일간 미진한 부분을 재정리한 바 있다.

발굴결과 망월사의 건물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건물 윤곽은 어느정도 남아있었지만 완전한 건물구조는 밝힐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밭을 깊이 파는 등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교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토 유물로 평기와편이나 조선후기 백자편 등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만 약간 출토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승병지휘소의 규모 등은 정확히 밝힐 수 없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일단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너무나 열악한 발굴경비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미흡한 점이 많은 발굴이 되었으며 발굴 직후 관장의 이동 때문에 발굴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점도 못내 아쉬운 점이다.

II. 望月寺의 現況과 歷史

남한산성 안에 있는 이 망월사는 오랜 역사를 갖고있는 고찰(古刹)이다. 원래 조선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한양의 신라 고찰인 華嚴宗의 壯義寺를 폐사시키면서 장의사의 여러 성보(聖寶)인 불상과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그리고 금정(金鼎) 1점(座)을 옮겨 망월사를 창건했던 것이다.¹⁾ 아마도 장의사의 일부 승려들까지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의사의 佛·法·僧이 모두 망월사로 이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월사는 명찰(名刹) 장의사를 계승한, 장의사의 후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라고찰을 중창한 셈이다.²⁾

이 망월사는 산성 동문에서 북으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올라가다가 장경사(長慶寺)와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100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꽤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山地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으므로 축대가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발굴 직전에는 가장 높은 대지인 정면(북쪽) 대지에 망월사의 전각 1동과 그 옆의 요사채 1동만 세워져 있었을 뿐 부속전각들은 모두 쇠락한 상태로 경작지로 변해버렸다.

발굴전 망월사의 유구는 잘 구축된 축대와 계단 장대석 그리고 초석 몇 개만 남아있었으며 유물은 법당 건물로 오르는 계단 옆에 있는 지름 167cm의 대형멧돌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발굴전의 망월사에는 옛 유구와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朝鮮王朝實錄 太宗-世祖條 참조.

2) 京畿道, 『南漢山城 地表調査報告書』, 京畿道 郷土文化叢書, 1986. 4.

Ⅲ. 발굴조사 경위와 경과

1. 발굴조사 경위

장의사의 후신인 망월사는 오랜 기간 동안 쇠락한 상태였으나 현 주지性法 비구니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1984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역 특성상 중창불사는 복원불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5년의 준비 끝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발굴 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예산상 불가능한 발굴이었으므로 계속 유보하다가 1989년 11월 2일부터 최소한의 인부임만 가지고 발굴에 착수하게 되었다. 주지스님의 눈물의 호소작전 때문이었다.

1989년 3월부터 5~6차례 예비조사를 거치고 문헌조사도 실시하여 망월사의 중요성과 발굴조사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실시했다. 그후 198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지 현황과악을 위하여 평판 실측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발굴지역도 설정하여 발굴 예비작업에 들어갔다. 11월 2일 개토제를 불교식으로 행한 후 3일부터 정식 발굴작업에 들어갔으며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유구와 유물을 정리한 후 전체 실측작업까지 완료하여 발굴작업을 일단 마무리 하였다.

2. 발굴조사 경과

1)발굴예비조사

1989년 10월 24일~11. 1(火) 晴

발굴현장 평판측량 및 발굴지역을 설정하다.

2)발굴조사

【11월 2~4일(土), 雲·雨】

발굴조사를 위한 장비 및 제반준비를 갖추고 발굴현장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남한산성 내 망월사에서 개토제 奉行(문명대 발굴단장

外 조사단원 15명, 主持 性法스님, 신도·주민 등 40여명 참석)

【11. 6(月), 雨·曇】

우천 관계로 발굴작업 어려웠으나 오후 늦게 (가)지역(추정 금당지), (나)지역(추정 나한전지), 각 시굴갱(pit) 및 시굴 트렌치 설치 작업하다.

【11. 7(火) 晴】

(가)지역 : 1·2갱의 1·2 트렌치, 4갱의 1·2 트렌치, 表土 및 腐蝕土 제거작업, I 갱, 1트렌치에서 지표에 드러나 있던 2기의 초석을 따라 석열이 노출. 4갱 2트렌치에서도 表土下 23cm에서 온돌장치의 일종인 고래형태의 석열이 灰土와 함께 노출.

(나)지역(추정 부속 건물지) : 각 갱 및 시굴 트렌치 설치작업.

(다)지역 : I 갱의 1트렌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지대석 성격의 석열이 노출되었으며 자기편 및 와편 출토.

【11. 8(水) 曇·雨】

(가)지역 : I 갱의 2트렌치 유구 정리 및 생토층 노출작업. II 갱의 2트렌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전날 4갱 石群성격과 같은 유구노출.

(나)지역 : I 갱의 1, 2 트렌치, 4갱의 1, 2 트렌치, 표토 제거작업. 각종 와편(평기와) 및 자기편 출토. I 갱 1, 2 트렌치에서 2기의 초석이 노출되었다.

(다)지역 : II 갱의 1 트렌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전날의 석열이 계속적으로 노출. 동전(常平通寶) 출토.

【11. 9(木) 晴】

(가)지역 : I 갱 1 트렌치 유구 정리작업. 表土下 32cm에서 잡석과 와편 출토. 6갱 2 트렌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고래형태의 석열 노출.

(나)지역 : IV 갱 2 트렌치, I 갱 2 트렌치 부식토 제거작업, IV 갱 1 트렌치 유구 노출작업 중 1기의 초석과 磚이 출토되었다.

(다)지역 : II 갱에서 노출된 석열 마감 확인. 트렌치 설정 및 발굴작업. 오후에 축대 표면 정리작업 후 사진촬영.

【11.10(金) 晴】

(가)지역 : V갱 1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고래형태의 석열 출토. VI갱의 1 트랜치 정면 축대 확인. 트랜치 발굴작업에서는 지대석과 팔각자기편, 塼 출토. V갱 1 트랜치 생토층 확인 작업에서는 表土下 70cm에서 생토층 확인. V갱 2 트랜치 표토 제거작업에서는 V갱 1 트랜치 석열과 연결된 고래 성격의 유구 노출 및 白磁垸이 출토되었다.

(나)지역 : IV갱 1 트랜치 유구 노출작업. II갱 1 트랜치 표토 제거작업. II갱 1 트랜치에서 초석 1기가 노출되었다.

(다)지역 : 전날에 마감된 지대석을 따라 다시 우측면 지대석 확인. 트랜치 설정 및 표토 제거작업, 외편 및 도자편 출토.

【11.11(土) 晴】

(가)지역 : II갱 2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초석 1기 노출, II갱 3 트랜치 표토 제거. 토기편·외편 출토

(나)지역 : I갱 정면 축대 확인 트랜치 설정 및 발굴작업. II갱 1 트랜치 유구 정리작업. 귀면문 수막새편 1점과 토기편·외편 출토.

(다)지역 : 전날의 건물지 우측면 확인 트랜치. 부식토 제거 및 유구 노출작업.

【11.13(月) 晴】

인부 수급 사정으로 (가)지역만 작업. IV갱 전면 발굴, 고래형태의 석열 노출 및 철제 유물 출토.

【11.14(火) 晴】

(가)지역 : IV갱 유구 정리작업. II갱 3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후 유구 노출작업. I갱 3 트랜치 표토 제거작업.

(나)지역 : II갱 1 트랜치 유구 정리작업. III갱 1 트랜치 IV갱 3, 4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석열노출.

(다)지역 : 출토 유물 분류 및 유구정리 작업. II·III갱 전면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11.15(水) 晴】

(가)지역 : I 갯 3 트랜치 유구 노출작업, 동전출토, II 갯 2 트랜치를 6m 60cm 연장. 정면 초석 확인 트랜치 설정 및 발굴. 초석 1기 노출, I 갯 전면 발굴.

(나)지역 : IV 갯 3, 4, 5, 6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축대 성격의 석열 노출.

(다)지역 : 2·3갯 유구 정리작업.

【11.16(木) 晴】

(가)지역 : I 갯 유구 정리작업. VI 갯 트랜치 유구 노출 작업. 고래 형태의 석열 유구 노출.

(나)지역 : V 갯 2 트랜치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다)지역 : 출토 유물 분류 및 정리작업.

【11.17(金) 晴】

(가)지역 : V 갯 2 트랜치 유구정리 작업. 전 유구 정리 및 청소작업. 사진 촬영.

(나)지역 : V 갯 전면 발굴 및 유구 노출작업, IV 갯 축대 석열이 5갯에서도 심하게 교란된 형태로 노출.

(다)지역 : 1·2갯 전방 축대 확인 트랜치 설정 및 발굴작업. 외편 및 도자편 다량 출토.

【11.18(土) 雲·曇】

初雪로 인하여 발굴 부진, 정리 위주의 작업 실시

【11.19(日) 曇·晴】

大地의 결빙으로 발굴작업 부진. 출토 유물 분류 및 세척작업.

【11.20(月) 晴】

(가)지역 : 方眼 설치 작업.

(나)지역 : III 갯 전면 발굴. 외편·토기편 및 자기편 출토

(다)지역 : IV 갯 전면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11.21(火) 晴】

(가)지역 : 유구 실측 및 도면 정리작업.

(나)지역 : III 갯 유구 정리 및 II 갯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다)지역 : IV 갯 유구 정리 및 VI 갯 표토 및 부식토 제거작업.

【11.22(水) 晴】

(나)지역 : II갱 유구 정리작업, I·IV갱 전면 발굴 및 유구 정리작업. 초석 1기 노출, 외편·토기편·자기편 출토.

(다)지역 : V·VI갱 유구 노출 및 정리작업.

【11.23(木) 晴】

(나)·(다)지역 : 유구 청소작업 및 사진촬영, 유물 분류 및 정리작업.

【11.24(金) 晴】

전지역 유구 정리.

【11.28(火) 晴】

(다)지역 : 방안 설치작업 및 유구 실측.

【11.29(水) 晴】

(다)지역 : 유구 실측 후 방안선 제거작업 및 사진촬영 작업.

【11.30(木) 晴】

(나)지역 : 방안 설치작업 및 유구 실측

【12. 1~ 12. 6】

유구 및 유물 정리, 실측

3)발굴조사단 구성

단	장	문	명	대
조사위원	김	창	균	
		박	도	화
		임	영	애
		이	강	근
조	사	최	춘	욱
원		이	인	영
		윤	경	숙
		김	영	애

Ⅳ. 망월사의 건축유구

망월사의 건축유구는 전형적인 산지가람으로 많은 축단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크게 3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법당지가 있는 상단의 유구, 이 유구의 한단 아래 유구, 요사채가 있던 왼쪽의 유구 등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은 축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요사채 유구의 축대는 잘 짜여진 축대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당지 유구를 (가)유구, 그 아래 유구를 (나)유구, 요사채 유구를 (다)유구로 명명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가) 유구

가 유구는 법당 건물지 때문에 전반적인 발굴은 거의 어려워 본 발굴에서 일부만 실시하였으나 그 다음해 3월에 법당을 철거한 뒤 이곳을 추가 발굴하였으므로 가 지역도 전면적으로 발굴한 셈이다. 그러나 이 유구는 교란이 심하여 건축유구의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 다만 방 구들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석열이 일부 출토되었으므로 대웅전 같은 불전(佛殿)이 있었던 곳으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춧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돌도 발견되었으나 석열이 고르지 못하여 교란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단 석축의 석열은 일부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주춧돌은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 건물 규모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상태로는 건물의 구조나 크기 등을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곳을 근래에 들어와서 법당건물이나 발 등으로 사용하면서 주춧돌을 대부분 제거하고 건물 유구를 교란시켜 원형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나) 유구

나 지역의 유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기단 석축도 전면에는 어느 정도 남아있고, 주춧돌도 일부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본다면 정면은 5칸이 되고 측면은 2칸으로 파악되는데 주춧돌의 심심간(心心間)이 대개 270cm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면은 약 13.50m, 측면은 약 5.40m 되는 아담한 건물지로 추정된다.

이 건물지의 후면에 걸쳐 건물지 위에 다시 한단의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들 같은 석열이 노출되므로 건물지가 파괴된 후 그 위에 승방을 건립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구는 불확실하여 크기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3.(다) 유구

산록을 깎아 축대를 쌓고 한단의 대지를 형성한 후 건물을 건립한 것이 이 유구이다. 축대는 일부 유실되었지만 높고 길어 조선조 사원 축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발굴 결과 초석은 모두 제거되었지만 건물 기단 축대 기초석들은 어느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석들은 큼직한 돌을 두줄로 놓아 기단 외형을 형성했는데 정면 길이는 19.2m, 측면 너비는 6.9m인 장방형 건물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 건물 역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아담한 규모로 추정된다. 주춧돌은 발을 일구면서 거의 대부분 제거한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막새기와류들은 모두 멸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방구들로 보이는 일부 유구가 노출되어 승방지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V. 망월사의 출토유물

망월사 유구에는 중요한 유물은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장의사의 후신으로 창건되었고 임란 이후에는 승병대장이 일시 지휘소로 삼을 만치 중요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유물이 하나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보고한 유물은 모두 23점이나 되지만 거의 모두 기와와 자기편들이어서 유물로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출토유물이 없으므로 다른 발굴에서는 폐기하는 정도의 유물도 수습할 수 밖에 없었다. 총 23점 가운데 기와편이 16점, 전(塼) 2점, 자기편 3점, 동전 1, 실감개 1점 등으로 분류된다.

1. 기와류

기와류는 모두 16점이나 완형은 한점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막새편도 1점 밖에 없어서 자료적 가치도 거의 없는 것이다.

1)귀면문 수막새편(크기 : 12.7×2.8cm)

(나)유구 출토에서 출토되었고, 전체의 1/4정도 남아있는 작은 편인데 외연부가 얇고 오른쪽 눈과 코끝 일부가 남아있을 뿐 거의 무문이며 와질은 연질에 속하는 것으로 조선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명문기와편(크기 : 19.6×15.1×2.8cm)

(다)유구에서 출토된 이 기와편은 “우에오십”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한글이 새겨진 명문기와는 드문 편인데 이 기와편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3)숫기와(크기 : 30.3×17.4, 두께 2.4cm)

역시 (다)유구에서 출토된 평기와로서 숫기와인데 물결문과 그물문이 새겨진 것으로 약간만 결실되었을 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조선후기 기와로 생각된다.

4)숫기와(크기 : 35.4×17.9, 두께 2.2cm)

앞의 3과 동일한 무늬를 가진 동형의 평기와인데 깨어진 상태도 거의 유사한 것이어서 완형에 가깝다. (다)유구출토.

5)숫기와(크기 : 31.0×15.4, 두께 2.8cm)

역시 (다)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앞의 예들과 비슷하지만 양 끝부분에 그물문과 평행직선문이 있고 중간에 그물문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약간 깨어졌을 뿐 완형이라 할 수 있다.

6)숫기와(크기 : 30.9×14.2, 두께 2.5cm)

(다)유구에서 출토된 숫기와로서 거의 완형이며 물결문과 평행문이 상하로 새겨져 있다.

7)숫기와

역시 (다)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하가 깨어졌고 무늬도 마멸이 심한 것이다. 앞의 무늬와 거의 같은 유형이다.

8)숫기와(크기 : 26.4×17, 두께 2.4cm)

(다)유구에서 출토된 숫기와인데 평행직선과 평행사선이 엇갈리게 새겨져 있다. 깨어진 부분이 많은 편이다.

9)숫기와(크기 : 30.2×15.6, 두께 1.9cm)

(가)유구에서 출토된 이 기와는 물결문과 평행직선, 평행사선이 엇갈리게 표현된 것이며 끝이 깨어졌다.

10)기와편(크기 : 17.2×10.8, 두께 2.2cm)

이 평기와는 굵은 사선무늬들이 엇갈리게 표현된 것으로 일부분이다.
(다)유구에서 출토되었다.

11)숫기와(크기 : 20.1×13.9, 두께 2.4cm)

(나)유구에서 출토된 이 숫기와는 (다)유구 출토 5)항의 숫기와의 동일한 무늬와 유형의 기와이다.

12)숫기와(크기 : 20.1×13.9, 두께 2.4cm)

(나)유구 출토의 이 숫기와는 11의 숫기와의 동일한 것으로 같은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13)숫기와(크기 : 20.5×12.8, 두께 2.0cm)

위 12)항의 것과 동일한 (나)유구에서 출토된 같은 무늬의 숫기와의 반대 반 이상 깨어진 것이다.

14)숫기와(크기 : 27.0×17.0, 두께 2.8cm)

물결문 위주의 이 숫기와는 두꺼운 경질의 기와로서 상부 일부가 깨어진 것인데 (다)유구에서 출토된 것이다.

15)기와편(크기 : 13.1×13.9cm, 두께 1.9cm)

(나)유구에서 출토된 기와편인데 물결무늬를 엇갈리게 한 것으로 일부분이다.

2. 塼

전은 무문으로 (가)(나)유구에서 각각 한점씩 출토되었다.

1)塼片(11.2×5.3cm)

(나)유구에서 출토된 이 전은 무문이고 검은 편인데 일부분이다.

2)塼片(13.1×7.6cm)

무문전의 조그만 편인데 1)보다는 덜 검은 편이다.

3. 鐵製 건축부재(21.8×2.9cm)

(가)유구에서 출토된 이 철제부재는 건축부재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속이 빈 “ㄱ”자 모양이다.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4. 자기류

1)白磁碗(口徑 10.4, 底徑 5.7, 高 2.5cm)

(가)유구에서 출토된 이 접시는 조선 후기의 백자류로서 태토가 맑지 않은 편이다. 거의 완형인 이 접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白磁碗片(口徑 17.8, 底徑 5.8, 高 4.9cm)

(나)유구에서 출토된 이 백자접시는 유약이 산화되었고 파손이 심한 편이다.

3)백자편(徑 9.3, 굽높이 2.3)

굽부분이 팔각을 이루고 있는 그릇의 밑부분인데 반이 깨어져 없다. (가)유구 출토.

5. 실감개(長 6.9, 徑 5.4)

토제로 된 이 실감개는 중심에 홈이 있고 좌우로 둥근모양을 이루고 있다.

6.常平通寶(직경 2.5cm)

(가)유구에서 출토된 이 동전은 상평통보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둥근 동전 안에는 4각형이 뚫려있다.

Ⅵ. 고찰

1. 건축고찰

가파른 산록을 평평하게 단을 만들고 축대를 쌓아 건물을 짓는 이른바 山地伽藍 형식으로 조성된 사원이 바로 망월사이다. 현재는 3단만 밝혀졌지만 원래는 더 많은 축단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大雄殿) 같은 금당터(金堂址)가 어디인지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단(上段)인 법당구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발굴결과 이 부분은 주춧돌들이 교란이 심하고 부분적으로는 건물기단 석축이 남아있지만 역시 교란되었을뿐더러 동반부의 기단석축 안에는 구들 유구가 일부 남아 있어서 금당 유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금당과 승군 지휘소가 좌우로 건립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금당만 있었는지 좀 더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나)유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아담한 불전(佛殿)이 건립되었던 건물지로 확인되었는데 측면 2칸은 너무 좁기 때문에 후대에 된 승방지 아래에 원래 1칸 정도 더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이 건물지에서 귀면 막새와 가 출토되었으므로 제2의 불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유구는 주춧돌이 없어져서 몇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지로 추정되며 구들구조로 보아 승방지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마도 조선초기의 초창 승방지로 생각된다.

2. 유물고찰

망월사 발굴에 의하여 출토된 유물은 극히 적었는데 조선초기 초창때의 유물들은 임란후 중창때 모두 파괴되었다고 생각되며 임란 후의 중창때의

유물들은 건물을 짓고 받을 일구면서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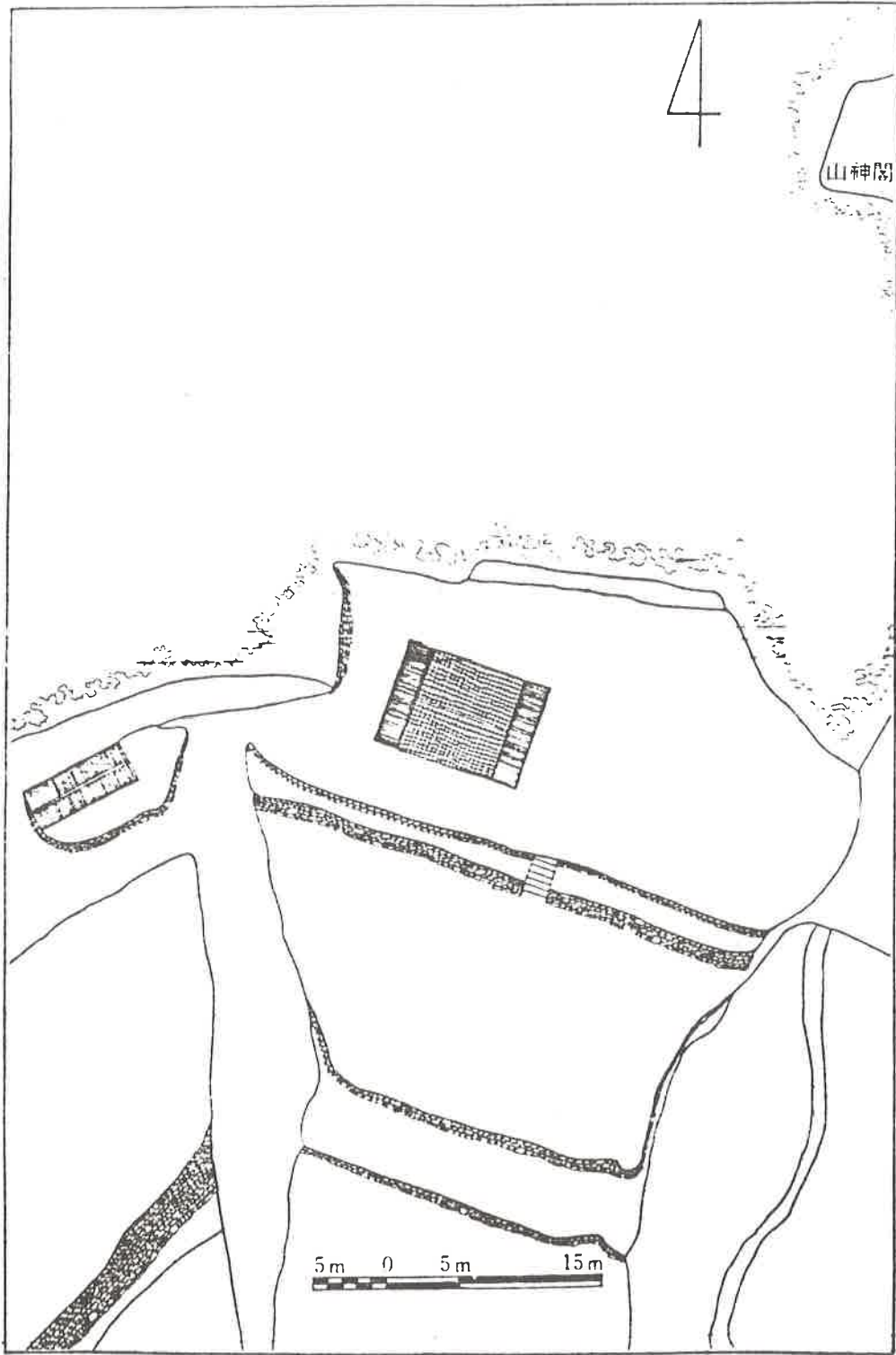
어느정도 완형에 가까운 솟기와들은 18세기 이후 주로 19세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백자편들도 대개 이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물 규모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막새기와들이 1편 외에 출토되지 않아 망월사의 전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2점의 전돌 편들은 초창때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창때의 불전에는 전돌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창때의 망월사의 규모나 격은 어느정도 수준있는 사찰이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Ⅶ.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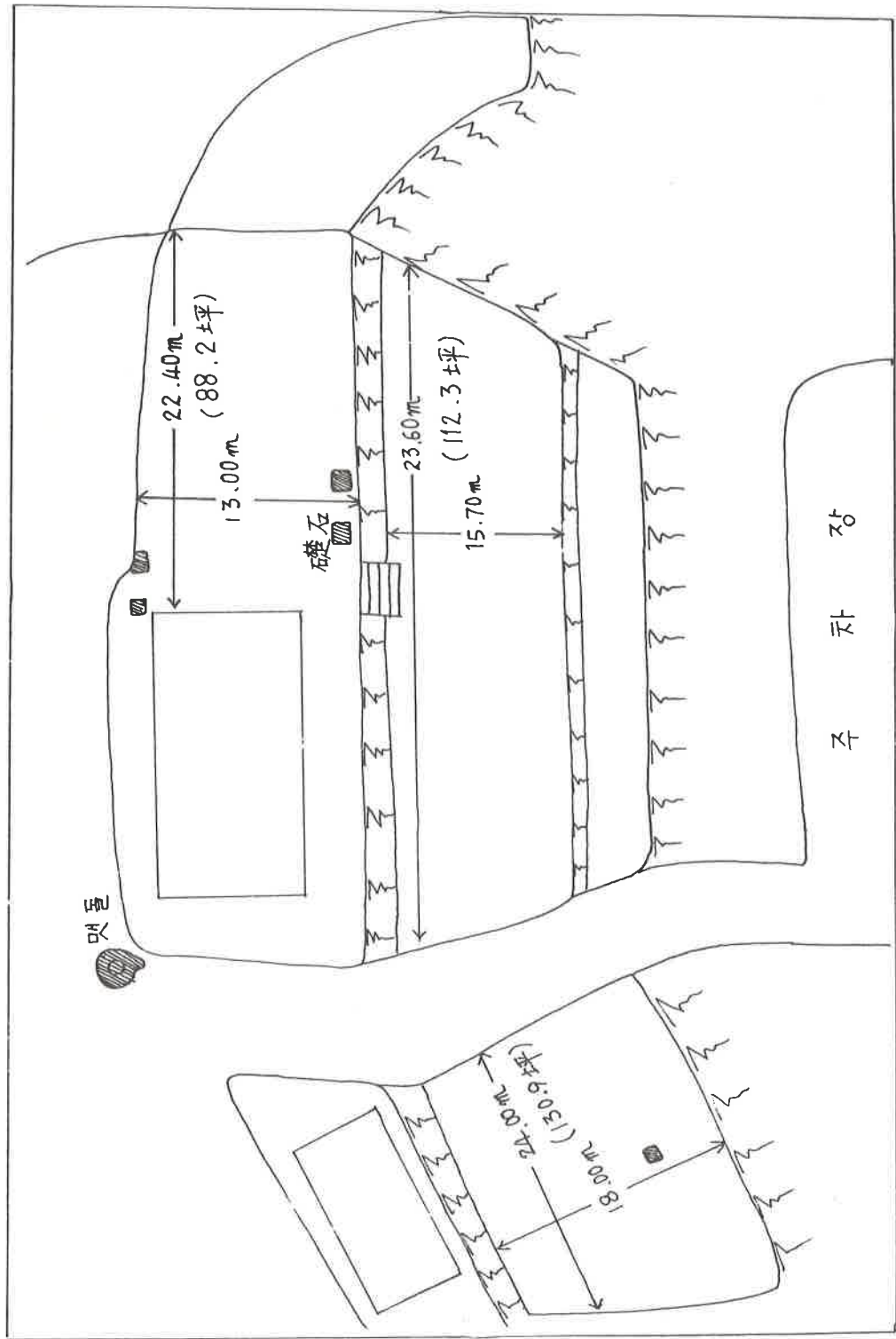
망월사는 장의사의 후신으로 조성된 조선초기의 사찰이지만 이번 발굴을 통해 그 당시의 규모나 중요성은 밝힐 수 없었다.

임란 후 남한산성의 승군들을 통괄하던 대표적인 사찰로 중창되었으나 교란이 극심하여 그 전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3단의 세 유구에서 불전과 승방들의 규모는 미흡하나마 어느정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토유물이 극히 빈약하여 망월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하겠다.

四 四



도면 1. 望月寺 平面圖



도면 2. 望月寺 現況圖 및 發掘區域

도 판



圖 1. 望月寺 遠景



圖 2. 望月寺 開土祭 장면



圖 3. 望月寺 全景



圖 4. (나)·(라)지역 발굴전 상태



圖 5. (가)지역 발굴장면



圖 6. (가)지역 발굴장면



圖 7. (가)지역 유구 노출 상태



圖 8. (가)유구 석열 노출 상태



圖 9. (나)·(다)지역 발굴장면



圖 10.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圖 11.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圖 12. (나)지역 유구 노출 상태



圖 13. 유물 출토상태



圖 14. 常平通寶 출토상태



圖 15. (다)지역 전경



圖 16. (다)지역 발굴 장면



圖 17. (다)지역 유구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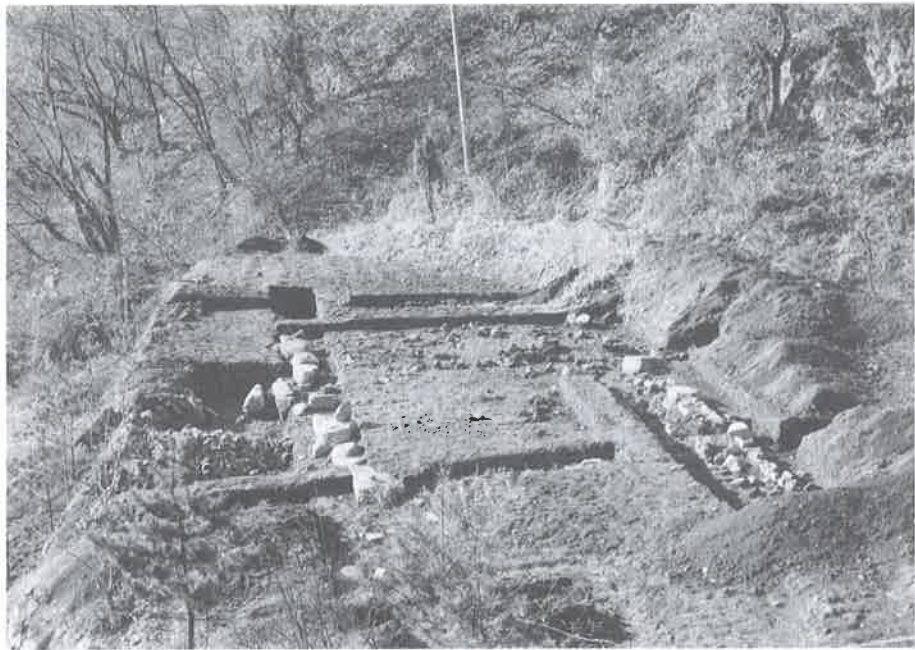


圖 18. (다)지역 유구 전경



圖 19. 귀면문 수막새편



圖 20. 명문 숫기와



圖 21. 숫기와



圖 22. 숫기와



圖 23. 솟기와



圖 24. 솟기와



圖 25. 솟기와



圖 26. 솟기와



圖 27. 솟기와



圖 28. 솟기와



圖 29. 숫기와



圖 30. 숫기와



圖 31. 솟기와



圖 32. 솟기와



圖 33. 숫기와



圖 34. 塼片



圖 35. 塼片



圖 36. 백자접시



圖 37. 백자접시



圖 38. 백자굽편



圖 39. 실감개



圖 40. 常平通寶



圖 41. 鐵製具

發掘調査報告書

南漢山城 望月寺

2001년 12월 15일 인쇄

2001년 12월 31일 발행

편집·발행 : 동국대학교 망월사 발굴조사단
(02) 2260-3426
서울시 중구 필동 34가 26

비매품